



1, 2 진주 별별뮤지엄  
3 시민들이 소규모 문화공연을 보고 있다.

## 진주 문화예술인의 소규모 전시·공연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북돋우고 침체에 빠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예술 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람객이 밀집하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상에서 축제 콘텐츠를 활용해 작은 예술공연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공연·전시가 계속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 문화생활 36오(娛, 즐거울 오)'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동절기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방역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를 두 단계로 구분해 실시하되 1차 행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행사를 2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와 생활문화단체 등도 작은 규모의 공연과 전시에 참여한다.

특히 소규모의 유동 전시와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색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축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여러 분야의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 문화공연 활동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예술이 환경변화에 발맞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제공해 시민의 정서적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 가능한 축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하고 비말성 감염 확산 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QR코드,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비치한다. 버스킹 공연 시간대에는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거나 지역 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 도시 진주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Co-brand of agricultural products in Jinju city, Korea

진주의 보석같이 귀한

명품농산물

진주  
JINJU  
DREAM

드림

